

이 대통령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환영”

“행정 지원의 문턱 과격적으로 낮출 것... 큰 결단에 국민 대신해 감사드려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최적의 시너지 발휘

지난달 27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9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과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인공지능) 시티 투자 협약식 축하에서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우리 정의의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께 하는 환호”고 물은 뒤 “그게 맞다. 우선 감사의 박수 드려요”라며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건데 그중 가장 큰 장애요소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은 다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미어터져서 어쩌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역 발전”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정부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데 결국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으로 가고 싶지만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대결단을 해준 현대차그룹에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해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그린 수소를 전환해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고 했다.

특히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나고 자라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며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임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

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주영 회장에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산=김민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등이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제공)

도내 정치권, 현대차 새만금 투자 “환영”

민주 도당 “AI·수소·로봇 새만금 집적화로 성공 사례 만들어야

도의회 “전북 대도약의 서막... 새만금, 국가 미래성장 실증 무대”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관련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 윤준병)은 “이번 AI·수소·로봇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투자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선언이자 산업 대전환의 실질적 출발점이어서 매우 뜻 깊게 평가한다”며 “새만금이 친환경 에너지 기반 위에 첨단 기술 산업을 결합하는 미래형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특히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와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은 기업의 강한 실용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투자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착공과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는 도의원 일동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약 9조원 규모의 이번 투자가 전북 역사상 최대 단일 기업 투자라고 강조하며,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성장 기반 마련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안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에서 체결된 현대차그룹과의 협약은 단순한 기업 투자 지원을 넘어 정부와 5개 부처·청, 전북도, 민간기업이 공동의 뜻을 모은 국가적 결집의 결과”라며 상징성을 부각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 산업이 함께 미래 전략산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공동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로봇·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새만금에 집적될 예정이어서,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실증 무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특히 해당 투자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모델의 출발점으로 만들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 “미래 첨단산업 요충지로 키우겠다”

현대차 새만금 투자 발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지역 9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부안을 국가 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유치법 군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로봇 제조 클러스터 조성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AI-수소 융합 미래도시 조성 등이다. 특히 부안군은 이번 투자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온 수소산업과 직

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안군은 작년 2.5MW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준공하며 수소의 생산·이송·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부안군은 이번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통해 부안의 수소 인프라가 새만금 및 전주·완주 수소도시와 연결돼 명실상부한 그린수소 생산 및 AI 융합 미래도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번 투자 협약의 파급 효과를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방침이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과 연계한 신규 수소·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첨단 산업 위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부안=김성진 기자

도, 현대차 9조 투자·정부 지원 맞물린 대도약 선언

“전북이 곧 대한민국의 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전북대학교 JBN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미팅이 끝나자마자 “전북도청으로 이동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며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와 정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전북 대도약 구상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뜻깊은 날”이라며 “대통령이 들고 온 선물 보따리가 전북 경제를 깨우고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오전 체결된 새만금 투자협약을 언급하며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는 전북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부 5개 부처, 전북도 등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사상 첫 7차 공동협약으로,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미래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지자체와 정부, 기업이 하나로 뭉친 상징적 협약”이라며 “경제유발 효과 16조원, 7만1,000명 규모 고용 창출 등 전북 산업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투자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주영 회장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결단”이라며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투자 유치 과정에 대해 김 지사는 “전북의 영업사원 1호라는 각오로 현대차 경영진과 산업부 장관 등 핵심 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전북의 의지를 설명했다”며 “절박함과 진정성이 협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전북 산업 구조를 세 가지 축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새만금을 로봇 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등 관련 기업을 집적하고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미팅과 현대차그룹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로봇 산업 중심으로 육성
그린수소 밸류체인 새만금서 완성 전북 전역 확산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로... 국가성장의 심장”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의 강점을 활용해 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이어지는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이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에서 접화된 혁신의 엔진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강력한 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전북 타운홀미팅에서는 현대차 투자 지원과 함께 전북의 중장기 비전이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국민연금 중심 자산운용 기능 집적,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 피지컬 AI 기반 K-팩토리 생태계 조성, 합프 등 농생명 산업 고도화, RE100 산업단지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전북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핵심 전략 과제들이 정부 국정 방향과 같은 궤도 위에 있을

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산업 투자와 정책 지원이 같은 날 동시에 연결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이 새만금을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닌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오늘 협약과 정부 약속을 토대로 새만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이 함께 부르는 희망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2086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관련 언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4명의 장관이 타운홀에 참석해 의미가 컸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건의를 통해 부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프 산업 추진과 관련해 다른 지역 실패 사례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2차 준비와 청와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긴밀한 협력, 국경과 제 병원을 기반으로 새만금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호 기자

용적율 인센티브 도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도, 이달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율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5.1%) △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8%) △주요 건설차비 70% 이상 사용(3.8%) △건축장비 50% 이상 활용(1.8%) 등이다.

특히 공동도급·하도급뿐 아니라 설계용역, 지역 자재와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반영해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만호 기자

도, 5일 BNY와 함께

금융산업·AI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금융 기업 뉴욕뱅크은행(BNY)과 지역 금융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5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NPS) 누리관 컨퍼런스홀에서 전북과 함께하는 금융산업과 인공지능(A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BNY가 주최하며, 도민과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민의 일상 금융 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모색한다.

주제 강연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주제 로렌스 물만 BNY AI허브 상품관리 본 부장이 ‘모두를 위한 AI(AI for Everyone)’를 주제로 발표한다. AI가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아니라 일반 도민의 금융 생활 속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싱가포르 주제 타피크 하미드(Tawfiq Hamid) BNY 아시아 태평양 데이터 및 분석 총괄 헤드는 ‘AI를 위한 데이터’를 주제로 AI 기반 금융 서비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전략과 글로벌 트렌드를 설명한다.

특히, BNY의 하니 카블라위(Hani Kablawi) 부회장과 팡팡 첸(Fangfang Chen) 아시아 태평양 대표도 참석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AI금융의 미래에 대한 생생한 소통도 이뤄질 예정이다.

패널토의에는 BNY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카드와 테너스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금융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도 ‘주민도움센터’ 명칭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인 ‘주민도움센터’를 2026년부터 ‘주민돌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통합돌봄 전행 시행에 맞춰 센터 역할을 생활밀착형 지원에서 ‘돌봄 연결·지원’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 전담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서비스과의 협력을 강화해 민관 협력 기반의 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전주 2개소(완산·덕진)를 포함해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2개 시군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완주 1개소를 추가해 총 13개 시군 14개소로 확대한다. /이만호 기자